



김중태 노무사



박남영 주무관

광주일보-광주상의, 자동차산업 노동시장개혁 좌담회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지역 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로 자동차산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광주일보는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산업 분야에서의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좌담회를 지난 15일 가졌다. 김일환 광주일보 편집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김중태 노무사, 권오산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교육부장, 박남영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주무관이 참석했다.



권오산 교육부장



김일환 편집부국장

“협력업체 품질 향상·인력 수급... 지자체 협력 필요하다”

-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집약되는 자동차산업은 원하청구조가 특징인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품회사의 성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원하청구조로부터 파생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가.

▲권오산 교육부장=원하청기업인 완성차업체는 납품단가 인가 요구 등 불공정거래 외에도 하청업체에 대해 품질관리나 노무관리까지 직접 관여하며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만을 배려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하청업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원하청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광주 지역의 부품사의 순이익률은 1.3%로 낮은 수준이다.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등 계열 부품사에 이익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중태 노무사=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지역 부품업체의 경우 현대·기아차 한 곳으로 집중되는 수요독점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부품 회사 중 75%가 완성차 업체 1~2개에 납품하고 있어 납품처를 다변화하기 힘든 구조다. 경기측면에서는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이다보니 불공정 거래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박남영 주무관=현재 많은 조사에서 지역 부품업체의 어려움이 감지된다. 부품업체들은 낮은 단가와 단가 인하 압력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많은 부품업체들이 한 곳에 부품을 조달하다보니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은 부도나기 마련이다.

-논의했듯이 원하청기업간 불공정거래는 결과적으로 노동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김 노무사=원하청의 상생이나 공정거래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격차는 더 심해졌으며 소득불평등과 이에 따른 상실감·박탈감 등 심리적 문제까지 커지고 있다. 하청업체는 불공정거래로 겨우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버티고 있으며 기술개발이나 인재 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또 새로운 납품처를 찾기도 어려워 하루하루 경영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권 교육부장=특히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부품사 노동자의 연봉은 평균 2300만원으로 전국 35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지역 부품업체의 경우 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이 50%가 넘는데 낮은 임금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잦다. 때문에 기술 숙련도 불가능하고 산재도 많을 수밖에 없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주무관=실제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광주일보는 광주상의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편집국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분야의 노동시장개혁이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완성차 업체 1~2곳 납품 집중 불공정 거래 악순환... 기술개발·인재 확보 요원

납품 단가 공시·동반성장지수 평가 세제혜택...노동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 필요

만 지역 부품업체의 고용과 소득 양극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모듈화로 시스템 공급업체의 고용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차 벤더가 아닌 하부구조의 근로자만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 미숙련 종사자들이 하부 부품업체로 이전하면서 노동환경도 더욱 열악해졌다.

▲권 교육부장=나쁜 일자리의 증가도 큰 문제다. 불공정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사내하청의 일반화는 정규직보다 사내 하청수가 더 많은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다. 완성차 생산량 증가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사내하청 일자리라고 봐야 한다. 사내하청으로만 운영되는 공장이 생겨났고, 불량 증가와 반비례해서 감소한 임금은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김 노무사=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율은 인적자원 개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간 이직율이 15%이상

이를 정도다. 임금과 작업환경 불만족으로 인한 이직 증가는 유능한 인력의 수도권 등으로의 유출과 겹치면서 양질의 인력확보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까지 바라보는 광주시의 계획대로라면 자동차산업 분야의 연구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개인적인 기술 숙련은 물론 품질향상이나 신제품 개발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권 교육부장=원하청 기업간 불공정 거래 구조가 만든 부정적 결과는 결국 대·중소기업간 현격한 임금·복지 격차를 가져오고, 이러한 근로조건 차이는 소득 양극화와 우수인력의 타지역 유출로 나타난다. 이로인한 세수 확보 어려움과 지역사회 이미지가 추락, 신규 인력 유치의 어려움 등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다. ▲김 노무사=안정적인 산업구조 기반 형성이 되지 못하면서

계급·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의 장애를 가져오는 점도 문제다.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을 볼 때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인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박 주무관=급여수준이 낮다보니 우수 인력을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역 희망 프로젝트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근로환경과 연구 조건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노동 환경 등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노·사 동반성장이라는 관점에서의 협력, 하청업체의 장기적인 품질개선 등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박 주무관=영세한 지역 부품사들은 품질개선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광주시가 과감하게 나서 규모의 성장을 이뤄야 할 것이다. 납품업체를 다변화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하는데 이는 부품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납품단가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도 필요하다.

▲김 노무사=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단기간의 압력을 중단시켜야 한다. 원하청기업 대기업은 부품회사와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품질개선을 전략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청업체도 기대대로 되지 않는 '낙수효과'에 전적으로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 소득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분수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이다.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협력의 획기적인 노력으로 평가받는 독일 지역사회(볼프스부르크)의 'AUTO 5000프로젝트'를 참고할 필요도 있겠다. 특히, 하청업체의 품질관리를 위해선 지자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협력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자동차별 조성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능력과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과 연구인력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권 교육부장=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선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 인권의 상황이라든지 세계 자동차 산업의 구조변화 등이 그렇다. 가령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동차 관련 부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노동전문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식이다. 산업도시를 위해선 노동인권전환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원청 대기업만이 아닌 원하청 상생을 위한 생태계(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근로자센터, 민주노동 등) 그룹만 조성 필요인 사업이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때나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복지기금을 낼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통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노사공동결정제도와 사외이사노동자추천권 등을 권장하고 근본적으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다.

/정리=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상 담 문 의
 010-3605-5000

경매투자

담양 금성면, 송학랜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시세/감정가 - 30억 정도
- 급매 - 17억 2천만원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 연 2.1%, 월 이자 220만원)

금호동 7층,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층 전체, 건 120평, 사면유리, 전망최고
- 과거, 빅스바(7080) 운영
- 시세/감정가 - 7억 정도
- 급매 - 5억 2천만원 (유자 3억 6천만원 포함)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돈·빌려주실 분! 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